

지역 소식통

부안서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결의행사 개최

부안군 건설교통과는 22일 부안군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결의행사를 가졌다.

이날 결의행사는 모범운전자회원과 건설교통과 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잼버리 성공개최 슬로건이 쓰이는 응원타올과 플래카드를 펼치고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외쳤다.

잼버리 결의 행사 후에는 번영로 상설시장 주변과 홈마트 사거리 주변을 돌며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문화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캠페인에서는 매력부안 교통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문화 정지선 지키기, 주차차 위반 안하기 주차장에 주차하기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통합쉼터 설치 등 여름철 폭염 대응 나서

고창군이 폭염 저감시설 대책 설치 운영하며 여름철 국민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폭염대응 관련, 한낮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린통합쉼터 버스승강장 2개소, 스마트그늘막 4개소, 냉온열의자 5개소를 설치한다.

또 폭염시 도로변 살수차 운영을 통해 뜨거운 도심의 열기를 낮출 계획이다.

앞서 군은 관내 604개소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이미 완료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 거동불편한 재난 취약계층에게는 생수 등을 제공한다.

고령영농인을 위한 안부전화, 마을방송, 민간예찰단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등 여름철 국민 보호를 위해 민관협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창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폭염 시 무더위쉼터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 시행

부안군, 지원체계 구축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진행

부안군이 군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해 부산물 배송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양곡 부산물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의 도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쉼미(5,200원/40kg), 쉼기(3,600원/40kg), 미강(1,500원/25kg)으로 작년 한 해에도 1,118을 생산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군민(농업인)들의 가축사육 등 다양도로 쓰이며 사료 값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물의 공급 및 수령 절차가 매달 부산물을 신청한 이용자 순으로 부산물이 배정되고, 배정받은 군민(농업인)들은 군을 방문하여 요구납부와 수령증을 교부받아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수령해 왔다.

군민 불편사항 과정을 보면 행정, 도정공장 군민(농업인)들이 월초 다수 신청자가 몰리면서 균형 사무실에서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일과 신청자가 고령층, 여성, 장애인 등인 경우 개당 25~40kg 상당의 부산물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차량 미 소유자는 부산물 수령 자체를 포기하거나 차량 대여로 인한 이중 경

비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의 불편과 문제점이 매일 반복되는 사항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쌀 브랜드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제도 개선 회의를 통해 그 결과 부산물 배송서비스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배달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부안군은 5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를 시행해 매일 부산물 배송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보다 편하게 지역에서 부산물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함으로써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배송서비스를 이용한 쫄면 김덕섭시장은 "쫄면에서 부산물까지 나가서 군청에 방문하고 또 도정공장까지 방문하여 거리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배송서비스를 시행해 주니 편리하고 참 좋다"라며 "고령이다 보니, 혼자 40kg 부산물 3개를



들기에는 힘이 부치는데, 민선 8기에 군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피부로 느껴짐을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민들에게 앞으로도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가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는 군민들의 좋은 반응과 좋은 정책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름값, 농자재, 비료값 등이 다 올라 농민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부산물 또한 한정된 생산량으로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 편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한두 달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생기면 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제29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제299회 정례회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민규)의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21일 제3차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회장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주도적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했다.

또한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했다. 이어 두 위원장은 각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을 요청하였다.

임정호 의장은 안건 의결 후 마무리사에서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례회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는 국정질문과 답변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고, 결산심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첫날인 14일 제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이경신 의원 임종훈 의원 오세환 의원의 국정질문에 대한 심덕섭 고창군수의 답변이 있었으며, 국정질문과 답변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회의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열어

고창군이 22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 고창군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열었다.

고창군은 "적절한 분배배출로 쓰레기 재활용률 증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선정해 '고창군 자원 재활용 up 프로젝트'를 주제로 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한다.

디자인단은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깨끗한 고창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모두 뜻을 모았다.

발대식 후에는 조영수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고창군의 재활용률 현황

과 정책디자인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군 국민정책디자인단은 11월까지 현장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직접 참여 지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까지 찾는 주민참여형의 정책결정으로 군민의 역량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3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포럼'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고창군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해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3년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포럼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내이처가 주관한 행사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고, 갯벌의 가치와 보존방안 등을 주제로 중앙과 지자체, 민간 등 각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조도순 국립생태원장 전승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남, 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관련 지자체, 고창군어촌계, 고창군민 등 갯벌 포럼을 위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제종길 해양생태학 박사를 좌장으로 △우경식 전 강원대 교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질공원, 그리고 한국의 갯벌 △박진순 한국해양대 교수의 '갯벌의 기초생산과 기후변화' △성하철 전남대 교수의 '고창갯벌과 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우경식 교수는 세계자연유산의 의미, 고창의 지질공원이 가지는 가치를 설명하고, 자연보전을 토대로하는 도약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박진순 교수는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생물에 대해 소개하며, 해양생태계서비스,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성하철 교수는 고창갯벌의 특징과 조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실제 조류 분포도와 섬식행동, 먹이원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추진희 한국생태관광협회 상임부회장 △문경오 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조류학회 강희영 박사 △명호 생태지평 연구소장 △최수경 금강생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행사 2일차인 23일에는 고창 만들 갯벌에 방문하여 직접 갯벌 탐방에 나서서 식하는 생물과 조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갯벌관련 도서를 한 자리에 모은 갯벌 도서전을 책마을에서 개최하여 축제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갯벌 포럼은 세계자연유산의 인식증진과 지속가능한 보존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홍보를 위해 각 기관과 단체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서 국내 수산물 구입 환급 행사 진행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정읍시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샘고을시장 내 48개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샘고을 시장 상인회건물 1층 고객센터)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의 최

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이다.

갯갈류 등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샘고을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환급받은 상품권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